

골로새 2-4
Tape #C2610
By Chuck Smith

Shall we turn now in our Bibles to Colossians, chapter two.

Paul had never visited Colosse. He had heard of the church from Epaphras, who was the minister there, who had told Paul of the love that these people had for Jesus Christ and of the faith. But he also told him of certain heresies that were trying to infiltrate the church. And so, Paul is writing to warn them against these heresies. And so in verse one of chapter two, he said,

골로새서 2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를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서 목회를 하였던 에바브라로부터 골로새 교회의 사정을 듣게 됩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바울에게 이야기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라는 또한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에 침투해 들어온 어떤 이단에 대하여서도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이단에 대하여 경고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2장 1절을 보면

For I would that you knew what great conflict I have for you, and for them at Laodicea, and for as many as have not seen my face in the flesh (2:1);

Paul is talking about this inner conflict that he had for them, a love that he had for them. The desire that he had to actually meet them and to see them. And though having not seen them, yet he is greatly concerned for them. He's concerned because of these heresies that were spreading like a plague through the church. And I don't know why it is, but it seems that lies or heresies fly on the wings of eagle and the truth goes on the back of a turtle. Heresies can spread so rapidly around the world. And it seems like people have a penchant towards heresy and so reluctant to follow the truth. And as it was in Paul's day, so it is today. We find how that these heresies that sweep across our country actually sweep across the world. And people get caught up in them all over the world. And this caused Paul tremendous inner conflict, a great concern, a great burden.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2:1)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갈등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들을 만나보고 싶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한번도 만나보지 못했으나 바울은 그들을 진정으로 아끼고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바울은 전염병처럼 교회 속에 번지고 있었던 이 이단들 때문에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왜 진리는 거북이 등을 타고 전해지는 반면에, 거짓말과 이단은 독수리 날개를 단 듯 삽시간에 퍼지는지 저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단은 너무나 빠른 속도로 세상에 퍼져나갑니다. 사람들은 이단은 좋아하고 진리를 따르는 것에는 머뭇거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이 나라를 휩쓸었던 이단이 결국 전 세계를 휩쓸어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이단에 잡혀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문제가 사도 바울의 내면에 심각한 갈등과 근심과 부담을 야기하였습니다.

Paul's prayer or desire for those who he had never actually met face to face, was...

That their hearts might be comforted, being knit together in love, and unto all riches of the full assurance of understanding, to the acknowledgement of the mystery of God, and of the Father, and of Christ (2:2);

Now, one of the heresies that was being promulgated there in Colosse was the Gnostic heresy. The people took their name to signify their pretended superior knowledge.

자신의 얼굴을 실제로 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향한 그의 기도, 또는 소망은 이것이었습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2:2)

골로새 교회에 퍼졌던 이단들 중의 하나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초월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척 하기 위하여 그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Quite often, you can tell a lot about a group by just the name that they choose. And whenever they choose some weird name for their fellowship, you know that there is something weird about the fellowship. And certain names do just sort of give you the hint to characteristics of the fellowship itself.

Now, the word Gnostic means to know. The Gnostics pretended that they had higher knowledge of mysterious things. And the Gnostics used to love to talk of the mysteries. And you had to really be initiated into their little club to be able to understand these mysteries, and they were always prating on this term, "the mysteries." And so Paul picks up their term, and his desire is that they might come to the acknowledgement of the mystery of God and the Father and of Christ, which he told us in the previous chapter was, "Christ in you, the hope of glory" (Colossians 1:27). Now their hearts might be comforted. Secondly, that they might be knit together in love. What a wonderful thing when a church is just tied together in the love of Jesus Christ. And then, that they might experience the riches of full assurance.

이름을 보면 그 집단의 성격을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한 이름을 가진 집단은 뭔가 이상한 구석이 있는 법입니다. 영지(Gnostic)라는 말의 뜻은 '안다'라는 뜻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이 비밀(mystery)의 세계에 대하여 남들보다 고차원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척합니다. 비밀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집단에 가입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비밀'이라는 단어를 쉴 새 없이 지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선택하였습니다. 그의 소망은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는 1장에서 말한 것과 같이 "영광의 소망"이시라는 것(1:27)을 그들이 깨닫기 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마음이 위안을 얻게 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두번째로는 그들이 사랑 안에서 연합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교회가 사랑 가운데 연합하게 되면 그들은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충만한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It's sad really that a lot of people struggle most of their Christian life with a lack of real assurance of their salvation. For years I wasn't really sure if I was saved or not, and I was going down to the altar every Sunday night to sort of confirm my salvation. But that's a tough way to live. What a blessing it is to have the full assurance. That's the purpose for which John wrote his little epistle, "These things write I unto you that believe on the name of the Son of God, that ye may know that ye have eternal life" (1 John 5:13). And what a blessing when you have that full assurance as we sing, "Blessed assurance, Jesus is mine." And this full assurance is what Paul was wanting them to experience.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을 볼 때 참으로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한 때 내가 과연 구원을 받았는지를 확신하지 못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주일 저녁이면 제단 아래 무릎을 꿇고 구원을 확신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곤 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이 산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괴로운 것입니다. 충분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쓴 목적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요일 5:13) 충분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정말 크나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구원의 확신을 골로새 교인들이 경험하기를 원하였습니다.

Now, how can I have full assurance? Only as I come by faith, trusting in the grace and the mercy of God, through Christ. If I am depending upon my efforts and my works to make me righteous, I can never have full assurance. So anybody who has this legal relationship with God or work relationship with God does by its very nature lack the full assurance of his salvation. It is not until you've really have come to that understanding of the grace of God and our position in Christ that you can really enjoy the full assurance. Paul's desire is that they might have this full assurance and the understanding and the acknowledgment of the real mystery. It's not some effort that I might put out to be righteous, but the real mystery is that it is Christ in me. That's my hope of glory, that work of Jesus Christ in me. And then, of course, because they were talking always about this superior wisdom and understanding and knowledge, Paul declares,

그럼 어떻게 해야 이 구원의 확신을 충만하게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믿고 신뢰할 때만 가능합니다. 행위와 노력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결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율법적인 관계 또는 행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충분한 확신이 본질적으로 결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지위를 진정으로 이해할 때 비로소 충분한 구원의 확신을 즐길 수가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소망은 골로새 교인들이 이러한 구원의 확신과 이해와 진정한 비밀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의롭게 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비밀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분이 나의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십니다.

다시 영지주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들은 항상 우월한 지혜와 지식과 깨달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In whom are hid all the treasures of wisdom and knowledge. [It's all tied up in Jesus Christ.] And this I say, [Paul said,] lest any man should beguile you with enticing words. For though I be absent in the flesh, yet I am with you in the spirit, joying and beholding your order, and the steadfastness of your faith in Christ (2:3-5)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어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의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2:3-5)

So Paul said, "I'm not really there physically, but I'm there spiritually." We've got to many people that attend church that way, there in the spirit but not in the flesh, not in the body. "Oh, I was with you in my spirit, brother." Oh great, you know, if the whole church was like that, we'd have nobody here. We'd have to close our doors. There'd be no sense of existing. But Paul said,

I am beholding your order, and the steadfastness of your faith in Christ. As ye have therefore received Christ Jesus the Lord, so walk ye in him (2:5-6):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록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이런 방식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령으로는 교회에 다니지만 육신과 몸으로는 다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형제님. 제가 영적으로는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교회를 다니면 이 교회당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겠지요. 그러면 교회 문 닫아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교회 다니는 것은 실제로 다니는 것이 아니지요. 어쨌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의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2:5-6)

Now, here to me is an interesting thing. Usually, people are pointed back to their roots. As you've received Christ Jesus the Lord, so walk ye in Him. Most of those who have some false doctrine or heresy to promote do not seek to promote it upon the unevangelized, but they seek to promote it upon the church. Very few heresies are evangelistic. They don't prey on the sinners; they prey on the saints. They don't go to the beach to proclaim their ideas. They go to the church, and they try to infiltrate within the church. And then give, "Well, I received this new revelation." Or, "Have you heard this new prophet of God and some new understanding or new revelation?" And that is why they are usually pointed back to their roots, because those who are evangelical, those who are really out bringing the lost to Jesus Christ are usually prompted by the truth of the gospel.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근원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은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꼬드깁니다. 불신자를 전도하는 이단은 아주 드뭅니다. 그들은 죄인들을 먹이로 삼지 않고, 성자들을 먹이로 삼습니다. 그들은 이단을 전하기 위하여 바닷가에 가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교회로 갑니다. 교회에 이단을 침투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님. 제가 새로운 계시를 받았어요." "새로운 선지자의 말씀, 새로운 계시를 들어보셨어요?" 골로새 교인들이 왜 근원으로 돌아가라는 지시를 받는지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전도하는 사람들, 밖에 나가 잃어버린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이들은 복음의 진리로 인해 힘을 얻어 그리하기 때문입니다.

And the gospel has always, as its natural effect, evangelism, reaching the lost, but not so those who are carriers of heresy. They want to be parasites. They want to live off the church. They want to bring to the church some new revelation. "Our ministry is not really to the lost; our ministry is to the church. Our truth that we have to share, it's for the church." And so he points them back to the beginning, as you've received Christ Jesus so walk ye in Him. Don't get carried off with some of these new revelations that God has just unveiled in these last days. Actually, we don't need any new revelations of truth. What we do need is new experiences in the established truth. God has given to us all that we need for the life of godliness in His word; it's all there. We don't need any new revelations. But what we do need is fresh experiences in the old truths of God's word. So beware, lest any man would beguile you with enticing words. For as

you've received Christ, so walk ye in Him. Rooted and built up in Him. Christ is the base, the foundation. But He is also the One on whom we build. Our lives are to be centered in Jesus Christ. 복음은 본질적으로 언제나 전도를 낳습니다. 잃어버린 자들에게 다가 갑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생충이 되고 싶어합니다. 그들은 교회에 기생하며 살고자 합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새로운 계시를 가지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사역은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는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역은 교회를 위한 사역입니다.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진리는 교회를 위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처음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였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고 말합니다. 말세에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보이시는 새로운 계시에 현혹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진리의 계시가 필요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세워진 진리 안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 안에 경건한 삶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담아두셨습니다. 새로운 계시가 전혀 필요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의 옛 진리 안에서 신선한 경험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여러분을 유혹하는 말로 기만하지 못하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십시오.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서 자라나십시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실한 기반이요 기초가 되십니다. 그 분 위에서 우리가 지어져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초점을 맞추는데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2:7)

Rooted and built up in him, and established in the faith, as ye have been taught, and abounding therein with thanksgiving (2:7).

So again, back to your roots. Your roots were in Christ Jesus. You were taught to believe and trust in Jesus Christ for your salvation, for the forgiveness of your sins. Now, don't try to improve by your works upon that righteousness which God has imparted to you through your faith.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대 우리의 뿌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뿌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박혀 있습니다. 구원과 죄사함을 얻기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뢰하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선물로 주신 의로움 위에 여러분의 행위를 더하여 보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

Beware lest any man spoil you through philosophy and vain deceit, after the tradition of men, after the rudiments of the world, and not after Christ (2:8).

And so the twofold warning: those that would beguile you with their enticing words away from the roots in Christ Jesus, and then those who through philosophy, the vain deceit which are after the traditions of men. For Christ is the center of our experience and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좇음이요 그리스도를 좇음이 아니니라 (2:8)

사도 바울은 2중적인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유혹의 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뿌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들, 그리고 이번에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들의 헛된 속임수는 사람의 유전을 좇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모든 경험의 중심에 계십니다. “그 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고 계십니다” (2:9)

For in him dwelleth all of the fullness of the Godhead bodily (2:9).

He's everything; He's all. And in Him dwells all of the fullness of the Godhead bodily.

Now, one of the things, of course, the Gnostics were denying was the deity of Jesus Christ or the incarnation that God came in a human form. Paul is affirming that truth.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 분이 전부이십니다. 그 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셨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분명히 선포합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온전(충만)해 졌도다”(2:10)

And ye are complete in him (2:10),

Oh, God, help us to realize that you are complete in Him. Your righteousness is complete; your salvation is complete. You cannot add to it. You are complete in Him. How many times in my endeavors to please God would I promise God that I was going to be better. I would make so many promises to God. "Lord, I'm going to pray more. Lord, I'm going to read the Bible more. Lord, I'm going to improve upon that righteousness. I'm going to be better; I'm going to be more righteous this week." And I was endeavoring by my efforts, by my works, to be accepted by God and to be righteous before God. And that was a

struggle. Oh, would to God that I had someone teaching me in those days that I was complete in Jesus Christ, to just trust in Him and rely upon Him that I am complete; there's nothing that I can add. If you're complete, you can't add to that. You're complete in Him. 오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온전해졌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는 온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도 온전한 것입니다. 거기에 뭔가를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온전해 졌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사람이 되겠노라고 수 많은 약속을 했었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더 많이 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더 많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좀 더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조금 더 의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 그리고 노력했습니다.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받으실만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애를 썼습니다. 그 때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다고, 그러므로 이제 잠잠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내가 주님 안에서 온전함을 신뢰하기만 하면 된다고, 내가 더 할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가르쳐 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온전하다면 여러분이 무언가 더할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온전한 사람들입니다.

Which is the head of all principality and power (2:10):

Now, the head there is used in the same sense as it is used in first Corinthians seven, as authority. So, Jesus has authority over all the principalities and powers. And we have told you before that principalities and powers are rankings of spirits.

10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시라” 여기서 말하는 머리는 고린도전서 7장에서 사용되었던 머리와 같은 뜻의 단어로서, 즉, 권위(authority)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께서는 모든 정사와 권세들 위에 군림하시는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정사와 권세들이라는 말은 영적인 존재들의 서열을 의미합니다.

Now, in the beginning, when God created the universe and then God first created angelic beings, millions of them, hundreds of millions of angelic beings. These angelic beings that God had created were in different ranks and orders. There were the cherubim, there were the seraphim, there were the principalities and powers and authorities and dominions, the various rankings of spirit beings. And when Satan, who was one of the highest ranking of spirit beings in God's

creation, when he rebelled against God, there is an indication in the book of Revelation that a third of the angels joined in his rebellion. Which means that God created them as free moral beings, even as He created us as free moral agents, making our own choices. And so, those that chose to go with Satan were probably equally out of each the various ranks. So principalities and powers can refer to the fallen angels, or it can refer to those that are still in obedience unto God. Regardless, Jesus has authority over them all. Naturally, those that are still obedient to God in that ranking, He rules over them, but also those that have rebelled against Him are still under His authority.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수 천 수 백 만의 천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들은 각기 다른 서열과 순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케루빔이 있었고, 세라빔과 정사들과 권세들과 지배권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가지 다양한 서열의 영적인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으뜸가는 서열에 있던 천사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3분의 1이나 되는 천사들이 그와 합세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인간과 같이 자유로운 선택을 내릴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사탄과 합세하였던 천사들도 아마 다양한 서열의 천사들이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정사와 권사들은 타락한 천사들, 아직도 하나님을 거스리고 있는 영적인 존재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보다 우월한 권위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그들을 지배하십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거스리고 불순종하는 존재들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들은 주님의 권위 아래에 굴복할 수 밖에 없습니다.

Now, I don't like to be misunderstood, and this is a difficult concept sometimes for people to grasp. But in the overall picture, Satan is performing the will of God. That is, he is doing a service that God intended for him to do. You see, God uses him for the purpose of testing our devotion and commitment to God. **If it were not for Satan, God would really not know, except that He has all knowledge. But you really would not know that you love God and thus as God said, "I've proved you."** It was really not that He might understand, but that we might understand ourselves. And so the purpose of the testings and the provings is for our benefit, that we might know exactly where we stand. You test materials in order to know their strengths and their weaknesses, and as God tests us, we come to the understanding of those places of weakness. And Satan is being used by God, fulfilling a purpose of God in the world today. It's tragic and sad that he

has that lot, but such it is. Now, he chose that, even as men today choose to rebel against God. So he cannot really blame God. 이제부터 드리는 말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러한 사상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만,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사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도구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계신 것을 그대로 행하고 있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과 순종을 시험하기 위하여 그를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아시기 위하여 사탄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시험이 없다면 우리는 자신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하는지 알았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무언가를 깨달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스스로 깨닫게 하시려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검증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물건이 있으면 그것의 강점과 약점을 알기 위하여 테스트를 해 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테스트해 보십니다. 우리의 약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도록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탄이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비극적이고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으나 그것이 현실입니다. 사람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거스려 반역하는 것처럼 사탄도 그렇게 하나님을 거스렸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Like Judas, he was sort of in a tight place. The Bible predicted that Jesus was to be betrayed by one of His friends. Jesus said of Judas, “It had been good if that man had never been born” (Matthew 26:24), because he was destined to betray Jesus Christ. Now, in the same token though, that was a part of the predestined plan, yet Judas consented to it and chose to betray the Lord. Hard concept, really, to grasp. And I’m not sure that we do fully grasp them. Satan was destined to be the instrument by which man might be tested, and yet, he chose to rebel against God. But even in his rebellion, he is performing that which God has purposed, and he remains subject unto God. God sets the limits and the bounds to which he can go. When he was appearing before God, in the case of Job, and complaining that God had a...“You’ve got a hedge around him; I can’t get to him. Take away the hedge. Let me get at that guy, he’ll curse you to...” God, first of all, had the hedge around Job. When God removed the hedge, He still set the limitations. "All right, you may go so far, but don’t do this." And so Satan still had to be subject unto the authority of God, and remains. God sets the

boundaries in which he can work. God sets the boundaries in which he's allowed to harass you. He can go so far, no further. God sets the boundaries and thus he has to be in authority unto God. 유다와 같이 사탄은 곤경 속에 처해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께서 그의 친구들 중 하나에게 팔려가리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유다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세계 좋을 뻔하였느니라”(마 26:24)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여 팔도록 운명지워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미리 예정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거기에 동의를 한 것이고 주님을 배반하기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저 또한 이 진리를 완전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인간이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데 도구로 쓰이도록 운명지워졌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스스로의 선택으로 하나님을 거스리고 반역한 것입니다. 그의 반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고 계획하신 것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께 지배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할 수 있는 것의 한계와 경계를 지어 놓으셨습니다. 율기를 읽어보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이렇게 불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이까? 그래서 내가 그를 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산울을 제하시옵소서. 내 손에 붙여주소서. 그러면 그가 당신을 저주하리이다” 이렇게 사탄은 아직도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 아래에 복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를 미리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사탄은 오직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경계 안에서만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있습니다. 거기 까지만 갈 수 있지 그 이상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탄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복종하며 살아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It is always wrong to think of Satan as opposite of God, not even close. You can make no comparison between Satan and God as far as opposites or even alike. For God, again, is infinite, eternal, omnipotent and Satan is a created being. And so, if you want to look for an opposite of Satan, you should look at Michael or at Gabriel, those angels which remain true to God who have a high ranking or the highest ranking among angels. But never think of Satan as an opposite of God, because you're accrediting him with far more power than he actually has, far more authority than he actually has. He moves within restricted boundaries. God sets the limits of his work. So, all of the principalities and powers are under the authority of Jesus Christ. He is the head or the authority over all principality and power. 그러므로 사탄을 하나님과 대등한 대적자 짝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탄과 하나님은 서로 대등한 경쟁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사탄의 경쟁자요 대적자를 굳이 찾으려면 미가엘이나 가브리엘과 같은 천사장을 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천사들 중 가장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모시고 있는 천사들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사탄을 하나님의 반대편 적장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힘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있다고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제한된 구역 안에서만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행할 수 있는 한계를 지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정사와 권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정사와 권세들을 다스리시는 가장 우월한 권위를 가지신 머리가십니다.

In whom also ye are circumcised with the circumcision made without hands, in the putting off the body of the sins of the flesh by the circumcision of Christ (2:11):

Now, there were those, and he's dealing now in this area, he's moved from Gnostics to the Judaisers, those who were teaching that in order to be righteous, faith in Christ was not sufficient. That's good, it's important, it's necessary, but it's not enough. In order for you to be saved, you must also adhere to the law. So you've got to be circumcised and you've got to also keep the law. Faith in Jesus is not enough. That's why Paul said, "You are complete in Him." It is enough. And you have been circumcised, but not the physical circumcision that the law required, but your circumcision is a true circumcision through Jesus Christ. You've renounced the life of the flesh. And here was the tragic error of the Jews that they were counting really on the physical experience and not upon the spiritual. So, though they had physically been circumcised, they were still walking after the flesh. And Paul said that totally negates the physical ritual. The idea is to cut off the life of the flesh, not to live after the flesh. So, Paul said if the Gentiles have turned away from the life of the flesh and are living after the Spirit, even though they may not have had the physical right of circumcision, it is accounted as circumcision, because God is looking at the heart of man. And so Paul here affirms the same truth. The true circumcision is that of the spirit within my heart, when I turn away from the life of the flesh to live after the Spirit through the faith and power of Jesus Christ. I have been circumcised in God's eyes, that is, I have been set apart to live after the Spirit before God. And that's what God counts. 11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제 사도

바울은 영지주의에서 유대교 이단으로 넘어갑니다. 유대교 이단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가르쳤습니다. “믿음? 좋지. 중요해. 필요해. 그러나 충분하지 않아.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율법을 준수해야 해. 예수에 대한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온전)하니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주님만으로 충분하도다. 너희가 할례를 받았으나 그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영적인 할례를 받은 것이니라. 너희는 육적인 삶을 벗어버린 것이니라” 유대인들의 비극적인 오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육적인 것을 의지하였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육체적인 할례를 받았으나 그들은 여전히 육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육체적인 예식의 의미를 전적으로 부인하였습니다. 예식의 의미는 육적인 삶을 벗어버린다는 것이지 육체를 따라 살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방인이 육적인 삶을 버리고 회개하여 영을 따라 살면 비록 그가 육체적인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참된 할례를 받은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같은 진리를 또 한번 강조합니다. ‘진정한 할례는 내 마음 속에서 영을 따라 받는 것이다. 이제 육적인 삶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권능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기로 결심할 때 그는 진정으로 할례를 받은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 구별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할례는 오직 그것 뿐입니다.

The tragic thing about rituals, physical rituals, is that too often people begin to substitute the ritual for the reality. In the ritual of baptism, how many people today are falsely trusting in the ritual of baptism for the reality? The ritual of baptism, as Paul is going to point out here, actually, is death to the old life of the flesh that I might be in the risen Christ, living after the Spirit, and that's what it means. Now, if I have been sprinkled when I was a child, or I've been dunked as an adult and I am still living in the old life, I'm still living after the things of the old life, then the physical ritual means nothing. But, if I, by the Spirit, am living and walking after the Spirit, the new life in Christ. It may be that I was converted out in the Sahara Desert and there wasn't enough water to dunk me, but that doesn't negate my salvation or the new life that I am living in Jesus Christ, because it's of the Spirit. As Peter said, "Now doth baptism save but not the putting off of the filth of the flesh" (1 Peter 3:21). It isn't the ritual, but it is a

heart, the conscience towards God of living and walking really after the Spirit. So, you were... 사람들은 육체적인 예식을 그것이 의미하는 실재와 혼동하여 대치하여 버리는 비극적인 실수를 범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라는 예식을 실재라고 믿는 실수를 범하고 있는지요. 세례의 의식은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육체적인 옛 사람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다시 부활하여 성령을 따라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릴 적에 유아 세례를 받았건, 아니면 성인이 되어서 세례를 받았건, 내가 여전히 옛 사람을 따라 살고 있다면 그 육체적인 예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면, 비록 사하라 사막에서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어, 세례를 받을 만한 충분한 물이 없어서 세례의식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받은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새 생명을 무효화시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성령이 주시는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벧전 3:21) 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며 살아가는 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2:12-13)

Buried with him in baptism, wherein also you are risen with him through the faith of the operation of God, who hath raised him from the dead. And you, being dead in your sins and the uncircumcision of your flesh, hath he quickened together with him, having forgiving you all trespasses (2:12-13);

Now Paul ties together these two rituals that both symbolize much the same thing. To the Jew, the ritual was circumcision, which was to be the symbol that I'm going to live after the Spirit not after the flesh. To the Christian, baptism signifies the same thing, the new life after the Spirit, the old life after the flesh, dominated by the flesh is dead. It's buried, and now I'm going to live a new life

after the Spirit. And both of the rituals symbolize the same thing. To the Jew it was circumcision; to the Christian it was baptism. Thus, the truth applies to both; it is not the physical right that does it, it is what has happened in my heart and in reality in my life. So, being dead in your sins, the uncircumcision of your flesh, He has made you alive together with Him, having forgiven you all trespasses. In Ephesians, chapter two, it is the correlating verse here, "And you, having been made alive who were dead in trespasses and sins; for in times past you walked according to the course of this world" (Ephesians 2:1,2).

바울은 사실 서로 같은 것을 상징하고 있는 두 개의 예식을 하나로 묶어 연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 예식은 할례입니다. 할례의식은 이제 육체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살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세례는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육체를 따라 살던 옛 사람은 죽었고 이제 성령을 따라 사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어서 묻혔습니다. 이제 나는 성령을 따라 새로운 삶을 삽니다. 두 가지 예식 모두 같은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것은 할례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은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 속에서 일어난 것, 내 삶의 실재 속에서 일어난 일이 중요한 것이지 육체에 생겨난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진리가 이 두 가지 의식에 모두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 가운데 죽은 것은 할례받지 못한 육체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과 함께 우리를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지나간 날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았도다"(엡 2:1-2) 라고 하여 그 두 가지를 서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So, the thing I love there, though, having forgiven you all trespasses. Your whole past has been blotted out through your faith in Jesus Christ. Every trespass, every sin has been blotted out as a result of your faith in Him. Not only that, the law which these people were trying to push upon the Colossians, this very...the ordinances of the law, the observances of the Sabbath days, the dietary laws, the types of meat that you can eat, and the various traditions of the Jews as far as the dietary laws, he said that Jesus...

*Blotting out the handwriting of ordinances that was against us,
which was contrary to us, and took it out of the way, nailing it to his cross
(2:14);*

모든 허물을 용서하셨다는 부분이 참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과거는 도말되었습니다. 모든 허물과 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도말되어 제하여 진 것입니다. 그 뿐 아니라 이 이단들이 골로새교회에 침투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율법, 안식일 준수와 먹을 수 있는 고기가 무엇인지 정하여 주는 음식관련 규례와 다양한 유대인의 전통들이 모두 도말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거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느니라 (2:14)

So, Christ is the end of the law to those that believe. The law could never make you righteous. The law could only condemn you. It was contrary to you. It was condemning you. Now, Jesus has blotted out these handwritings of ordinances which were against us. Thus, I am not under law. I am not under a righteousness that is affected by rules and regulations. My righteousness has nothing to do with my actions. My righteousness has to do with my faith. Now, my faith will produce actions. And if I say I have faith and yet my works are not in correspondence with it, then I am making a false boast of faith. But the works always must follow and be the result of faith. And that means that I do not depend upon my works as a righteous basis in my standing before God.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율법은 우리를 절대로 의롭게 만들지 못합니다. 율법은 기껏해야 우리를 정죄할 수 있을 뿐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거스립니다. 우리를 정죄합니다. 이제 예수께서 우리를 거스리고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거를 모두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셨습니다. 이제 나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나는 법도와 규례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그런 의로움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나의 행위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나의 의는 오직 나의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나의 믿음은 행위를 만들어 냅니다.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내 행위가 그 믿음에 일치하지 않는다면 나는 거짓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행위는 믿음의 결과이며 언제나 믿음을 따라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데 나의 행위가 의로운 기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I don't say, "Well, I'm righteous because I pray so many times a day. I'm more righteous than you, because I read my Bible and you don't." No, I'm not righteous because of what I have done. I am righteous because God has imputed righteousness to my account because I am believing and trusting in Jesus Christ completely. Now, because I am believing and trusting in Jesus Christ, I do want to know Him. And so, I do read the word. Because I do trust in Him and love

Him, I do communicate with Him and want to keep in constant communication and in constant fellowship with Him. But that doesn't make me righteous. That is only the result of the fact that I am righteous through my faith in Jesus. It's important that we distinguish that, vitally important that we distinguish that. Because it is so easy for us to relate our righteousness to our activities and to our works. Now, when I do that, then I am always putting myself in the position of judging others who aren't doing as much as I am doing. And see, that makes me a little better. That makes me a little more righteous and it also puts me in the position of sort of judging, "Well, you know, they just really don't have it." So it's a dangerous place to be. God doesn't want me to be there. "하루에 몇 번씩 오랜 시간 기도를 하므로 나는 의롭다. 나는 너 보다 성경을 많이 읽기 때문에 너보다 의롭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행한 일 때문에 의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고, 그 분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로움을 전가시켜 주신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의로워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성경을 읽습니다. 그 분을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그 분과 교통하기 원하고 지속적인 교제와 사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더 의로와 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열매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구분할 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의 행위와 의로움을 연관짓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행위와 의로움을 연관짓게 되면, 내가 행하는 것만큼 행하지 않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다른 이들보다 아주 조금 나은 구석을 발견하게 되면 이내 판단하는 자리에 올라서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 사람들은 왜 그걸 안 하지?" 그 자리는 정말로 위험한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But when my righteousness is just through my faith in Christ, I can't boast in my righteousness, nor can I boast in the works that I'm doing. And if you come across someone who is boasting in their efforts, boasting in their sacrifices, boasting in their works, you have a classic example of what I'm dealing with. You see, because God has made righteousness something that He imputes to me through my faith, it totally eliminates boasting, except in Jesus. So, when you get people who are just always talking about how good Jesus is and how wonderful Jesus is and, "Oh, I don't know what I'd do without the Lord. The Lord is so good, He's so blessed me." Then you know that person has really come to a real understanding of what it is to have the righteousness through the faith in Jesus

Christ. Cause he's not telling about himself, but he's boasting in the Lord and what the Lord has done.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었다고 믿는 사람은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할 수도, 자신의 행위를 자랑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믿음을 통하여 내 안에 의로움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님 밖에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살다보면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너무 멋있어요.” 온통 이런 말 밖에는 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주님 없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너무 좋아요. 다 주님의 축복이에요” 이런 말만 하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된다는 기독교의 진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고 주님만을 자랑하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만을 높입니다.

So, Jesus brought an end to the rule that the law had over man. Nailed it to His cross, that's the end of the law. It was a schoolmaster until the time of Christ. When Christ came, law was no more valid. It was up to that point, but He was the end of the law to those who believe. So that no man can be made righteous by keeping the law. You can only be righteous through believing in Jesus Christ.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인간에 대한 율법의 지배에 종점을 찍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것이 율법의 마지막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일하던 몽학선생이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므로 율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거기까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율법의 마지막이 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율법을 준수함으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하여서만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And having spoiled the principalities and the powers, [Now, we read that he had authority over these principalities and powers, and now we're told that he spoiled them or He defeated them and] he made a show of them openly [through the cross] triumphing over them in it [or in the cross] (2:15).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전에 우리는 예수께서 정사와 권세들 위에 우월한 권위를 가지고 군림하심을 본 바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벗어버리셨다고 하셨습니다. 무릎꿇게 하셨다, 물리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십자가를 통하여 밝히 드러내시고 승리하셨다고 하였습니다.

So, the cross of Jesus Christ is the place where victory over Satan was complete. Now, Satan so often has the tables turned on him; he's not omniscient, he doesn't know all things, and he falls into the trap so many times. God just turns the tables on him. As with Joseph and his brothers who conspired to sell him as a slave to Egypt. You know, to send him down to Egypt and being sold as a slave. And later, when Joseph came to the Pharaoh and interpreted the dream and was placed by the Pharaoh as the head over Egypt. And then his brothers came down to by grain and all. And when they finally realized that it was their brother who they betrayed who they were dealing with, they had great fear, and they said, "Oh man, we've had it. This guy's going to get us." He said, "Now look, don't be afraid that I'm going to take vengeance on you guys. I know that you meant it for evil, but God intended it for good." And so often God will take those evil intents of Satan, and turn them around for good. See, he's always getting the tables turned on him and you'd think he'd get discouraged after a while. He follows this plot along and thinks, "Ah ha, I've got it all set up." And then flip, God turns the tables, and instead of coming out on top, he comes out on the bottom.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탄에 대한 온전한 승리가 이루어진 곳입니다. 이제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사탄은 전지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는 너무나 자주 함정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역전시키신 것입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요셉의 형제들은 그를 애굽에 노예로 팔아넘겼습니다. 후에 요셉이 바로 앞에 나와 꿈을 해석해 보였고, 바로는 그를 애굽 총리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 곡식을 얻으려고 애굽으로 오게 되고, 그들은 결국 자기들이 마주하고 있는 애굽 총리가 자신들이 배신하여 팔아넘겼던 동생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어마어마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끝장났어. 요셉이 우리를 죽여버릴꺼야." 그 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형들에게 복수를 할까봐 두려워 마소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악한 계교를 취하셔서 그것을 선하게 바꾸어 버리십니다. 언제나 그렇게 상황이 역전되는 것을 보면서 사탄은 잠시 동안 기가 꺾어버립니다. 그러나 이내 다시 또다른 계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하. 이번에는 완벽하게 성공하겠지" 그러나 또 다시 뒤집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또 역전시키신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밟고 올라서기는커녕 발등상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Haman, determined he was going to destroy the Jews, was going to get rid of them once and for all. And after this mortifying experience where the very

man who prompted all of his anger against the Jews, he was forced by the King to give him a position of honor. Had to go through the streets in front of him in a chariot and say, "This is the man that the King wants to honor." Oh, how the Lord turns the tables on old Haman. And so, he built the gallows, ninety feet high so that the whole city could see Mordecai hanging, I mean, going to kill all the Jews but I've got a special spot for this Mordecai. I'll let him swing from a ninety foot gallow where everybody will see it. And he got hung on his own gallow; so often happens that way.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도 유대인을 몰살시켜버릴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날 한 시에 모든 유대인들을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모르드개로부터 굴욕을 당한 이후 하만은 유대인들에 대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지만 오히려 그는 왕으로부터 모르드개에게 영예를 주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는 거리로 나가 마차를 탄 모르드개 앞에서 " 이는 왕이 영광을 내리는 사람이니라 " 고 외쳐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활한 하만 앞에서 상황을 역전시켜 버리신 것입니다. 하만은 90피트나 되는 높은 교수대 기둥을 세웁니다. 온 도시로 하여금 모르드개가 달리는 것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모든 유대인들을 몰살한 계획을 세웠지만 특별히 모르드개를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90피트짜리 높은 교수대에 모르드개를 달아버려야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말이야. 그러나 그는 결국 자신이 교수대에 달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그와 같습니다.

Satan, bringing Jesus to the cross, raising up the people against Him, but it was at the cross where Jesus defeated him. For the law had a claim on us because we had violated the law and thus, we had to die. Satan had a claim on us because we had served Satan, and the wages of serving Satan is death, but Jesus redeemed us from the curse of the law. He redeemed us from the power of Satan. He purchased us. Where? At the cross. There He paid the price, because He died in our place. And so, He spoiled the principalities and powers. He triumphed over them there in the cross. The cross is the open display of the victory of Jesus.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끌어왔으며 사람들을 꼬드겨서 주님을 대적하도록 만들었지만, 예수께서 사탄을 이기신 곳은 바로 그 십자가였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는 그 율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만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탄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사탄을 섬긴 대가는 사망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 분은 우리를 값 주고 사셨습니다. 어디서요? 바로 십자가에서 입니다. 거기서 주님은

값을 치루셨습니다. 그 분이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주님께서는 정사와 권세들을 벗어버리신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들을 밟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승리가 밝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Let no man therefore judge you in meat, or in drink, or in respect of a holyday, or of the new moon, or of the sabbath days (2:16):

Now, these were all things under the law. They weren't to eat certain kind of meats. They were to prepare the meat in special ways that they did eat. They had certain holy days. They had the Sabbath of the new moons. And then they had the Sabbath days. And Paul is saying, "Don't let anybody judge you in these things." They no longer apply to me in my relationship with God. My relationship with God is not enhanced by my keeping a particular diet. I can't by diet make myself more righteous. "Oh, you eat pork? Oh, shame on you. I would never eat pork." And as though that would make me more righteous, you see. So, today we find people that are judging us in meat, or in drink, or in respect to a holy day or Sabbath days. 1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은 율법적인 행위들이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던 유대인들은 어떤 특별한 고기들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먹을 수 있는 고기들도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손질을 하여 준비한 것들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켜야 하는 특별한 절기가 있었습니다. 월삭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아무도 이런 것들로 인하여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과 나와 의 관계에 있어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의 관계는 특별한 음식법을 지킨다고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법을 지켜서 더 의로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돼지고기를 먹는다고? 부끄러운 줄 알아라. 난 돼지고기는 절대 안 먹어"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 의롭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기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안식일의 문제로 우리를 판단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Now, these holy days, these Sabbath days, these offerings that were made, were all a shadow of things to come. They weren't reality. They were only a shadow. They were foreshadowing things to come. The real substance is Jesus, the body; the substance is of Christ. These things only foreshadowed. So, the Sabbath day was only a foreshadowing of the rest that we have in Jesus Christ. He is our Sabbath; He is our rest. So it really makes no difference if we gather on Sunday, the first day of the week to worship Him or we would gather on a Saturday to worship Him, immaterial. The idea of the Sabbath day was to show

God's rest for His people, but that was only the foreshadowing of the real rest that we have in and through Jesus Christ. So, all of these things within the law only foreshadowed what was accomplished by Jesus. And the law is important for us to study only to understand completely what Jesus has done for us in His sacrifice for our sins. 그러나 절기들이나 안식일이니 또는 제물들은 모두 다가올 것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것들은 참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다가올 것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참된 실재는 예수님이십니다. 몸, 즉 실체는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율법의 일들은 오직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은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안식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안식일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안식이십니다. 우리가 일요일에 모여 주일예배를 드리건, 아니면 월요일에 모여 예배를 드리건, 또는 토요일에 모여 예배를 드리건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안식일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을 보여주기 위하여 고안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안식이 이제 임하였으니 그것은 이제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안의 그 모든 것들은 예수 안에서 성취된 것들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율법은 오직 예수께서 그의 희생을 통하여 행하신 일들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하여 공부하는 것에 그 의미가 있을 뿐입니다.

Let no man beguile you of your reward in a voluntary humility in the worshipping of angels, intruding into those things which he hath not seen, vainly puffed up by his fleshly mind (2:18),

Now, there are those who would say, "Well, now, you don't want to bother God with all your little things. Or God may not be interested in listening to you, so it might be wise... There's this particular saint who lived in this area, and it might be wiser if you would pray to him to intercede for you. Because surely God loves him. He was such a holy man, and God loves him, and he'll listen to him. So you pray to the saint and have the saint intercede, because you really shouldn't come to God with that yourself. You know, you're sort of on the outs, and so get someone who's on the in, and let him intercede for you." Let no man beguile you of the reward in voluntary humility, the worshipping of angels or the worshipping of the saints. As they intrude into those things which they have not seen. It's all just a part of the vanity of a puffed up mind. 18절입니다.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좇아 헛되이 과장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귀찮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천상에 살고 있는 특별한 성인에게 기도하고 그가 당신을 대신하여 중보하도록 하는 것이 현명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는 거룩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가 기도하는 것은 들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성인에게 기도하여 그가 당신을 위하여 중보하도록 하라. 당신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안된다. 당신은 주변부의 별 볼일 없는 사람이니 하나님 측근의 끝발있는 사람에게 중보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해야 한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와 성인을 숭배하는 것을 인하여 너희를 호도하지 말도록 하라.” 그들은 자신들이 보지 못한 것을 강요합니다. 그것은 우쭐대는 마음이 부리는 허영의 일부분입니다. 헛된 과장입니다.

And not holding the Head, from which all the body by the joints and bands having nourishment ministered, and knit together, increaseth with the increase of God (2:19).

We can each of us hold onto Jesus Christ and receive our strength and our nourishment directly from Him. “There is only one God, and one mediator between God and man, the man Christ Jesus” (1 Timothy 2:5). And Mary cannot mediate for you, nor can any of the saints mediate for you. Nor can any of the angels mediate for you. One God and one mediator, and Jesus Christ is that mediator. Jesus said,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and no man can come to the Father but by me” (John 14:6). You can’t come to the Father through the saints. And of course, you take it one more step: go to Mary to talk to her son to talk to her father. But know you can come directly to the Father through Jesus Christ who is our mediator. “Therefore, let us come boldly to the throne of grace that we might receive mercy in the time of need” (Hebrews 4:16). I don’t have to go through a chain of command. Jesus has opened the door directly to God’s throne for you and for me. We’ve become the children of God. And one thing about children, they have access always to the Father. 19절을 보시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우리 각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분으로부터 힘을 받고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딤후 2:5) 마리아도 그 어떤 성인들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중보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중보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성인들을 통하여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를 통해서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한 술 더 뜹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예수는 마리아의 말을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지휘서열을 통과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로 직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의 특권은 아버지께로 언제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Interesting, you know, because of our schedule it's just not easy to see everybody. And a lot of times people come in and we're so piled high with work that it's hard to take time to see them, but you know, there's the little kids around here that come an' knock on the door and say, "Grandpa!" And immediately the door is opened and there's always, it seems, time. They have access because of relationship. And that's the neat thing about God, your relationship, there's always access. The door is always open. You can come always. So, this is a false humility. Don't let anybody beguile you as to the advantages of it. There are no advantages to it. 바쁜 스케줄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만나러 옵니다만, 제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다 만나지를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 제 손자 녀석이 있습니다. 이 조그마한 어린 아이는 선약없이 와서 제 사무실 방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문이 즉시로 열립니다. 언제나 그 아이를 위해서는 시간이 납니다. 손자녀석과 저와의 특별한 관계 때문에 언제나 나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와 같은 축복이 있습니다. 언제나 그 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문은 언제나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인이나 마리아나 다른 중보자를 의지하는 것은 거짓된 겸손입니다. 아무도 이런 것들로 여러분을 이용해 먹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거기에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Wherefore if you be dead with Christ from the rudiments of the world, why, as though living in the world, are you subject to ordinances, (Touch not; taste not; handle not; which all are to perish with the using;) after the commandments and the doctrines of men? (2:20-22)

Now, this life of asceticism which the Gnostics lived as though it made them more spiritual. You know, if you want to really be spiritual then you'd better go find a little eight by eight cubicle and lock yourself in, and lock the world out, and just sit there and read your Bible all day long and sing hymns unto God, and live within that cubicle. Oh, then you'll be very holy and very righteous. No. These things may... Fast all the time. Don't eat this! Don't eat that! Don't touch this! Don't touch that!

20절부터 23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좇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좇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영지주의자들은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보다 영적인 사람이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진정 영적인 삶을 살기 원한다면, 산 속에 좁은 오두막을 짓고 거기다 자신을 가두어 놓은 후 세상과 자신을 단절시키고 거기 앉아서 하루 종일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을 자주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을 먹지 말라. 저것도 먹지 말라. 이것을 만지자 말라. 저것도 만지지 말라!

These may show some wisdom in discipline of the body and in humility as you are disciplining or neglecting the body. But in reality, they do not honor God but they only glorify the flesh or satisfy the flesh. In other words, my flesh might be very satisfied in a thirty-day fast, that now I've really proved that I have mastered over my body and all, but really, then I am glorying in what I have done and it doesn't really honored God. Maybe some wisdom in the discipline, but it only brings satisfaction to the flesh; it doesn't honor God.

육체를 다스리고 부정하는 겸손의 훈련을 통하여 어떤 지혜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육체를 영광스럽게 하고 육체를 만족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30일 금식을 통하여 오히려 나의 육체가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아라. 내가 나의 육체를 다스렸지 않느냐” 그러나 실제로는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행한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금욕의 훈련을 통해 몇 가지 지혜를 얻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만족시키는 일이 될 뿐입니다.

Chapter 3

So then,

If then you are risen with Christ [If you are risen with Christ... going back to buried with Christ in baptism, now risen with Him], seek those things which are above, where Christ sitteth at the right hand of God (3:1).

You're not really bound to these things of the world, the rudiments of the world. You're not under the laws: touch not, handle not, taste not. You've risen with Christ. You're living in a new dimension of life, the spiritual dimension of life. And you should be seeking those things which are above where Christ is sitting on the right hand of God.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엣 것을 찾으라 !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3:1)

우리는 진정 세상의 것들에 매여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만지지도 말라, 움직이지 말라, 맛보지 말라는 율법의 명령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차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는 위엣 것을 추구하여야 합니다.

Set your affection on things above, not on things on the earth. For you are dead, and your life is hid with Christ in God (3:2-3).

Now, again, my life is the reflection of what I am and what I believe. And it doesn't mean that Paul is giving these people a license to live after the flesh. It doesn't mean that he's saying it doesn't matter how you live. What he is saying, that these aren't the things that make you righteous. And you shouldn't be living in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God under the law; you should be living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God, seeking the things which are spiritual, seeking and pursuing those things that are above. Setting your affections on things above, not on these things on the earth. For really you are dead to them, and that's the principal he is teaching.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thus I am dead to the flesh and to the things of the flesh and to the life of the flesh; I should not be living after the flesh. For you are dead and your life is hid with Christ in

God. That's where I am now living in Christ, in God. And, “위엿 것을 생각하고, 땅엿 것을 생각지 말라 ! 이는 너희가 죽엿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취엿음이니라” 나의 삶은 내가 누구이며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반영합니다. 바울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허가증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믿음만 중요하고 어떻게 사는지는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한 것들은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과 부정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긍정적인 관계 속에서 위엿 것들,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닌 위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땅의 것들에 대하여 죽엿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육체의 일과 육체적인 삶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살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엿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When Christ, who is our life, [Now, you see this is the key to it right here. Can you say that Christ is my life? As Paul said, “For me to live is Christ,” and I love this powerful statement.] When Christ, who is our life, shall appear, then shall ye also appear with him in glory (3:4).

Jesus is going to come again as he said with “the clouds of heaven...and great glory” (Matthew 24:30). "Behold, He cometh...every eye shall see Him" (Revelation 1:7). "Ye men of Galilee, why stand ye gazing here into heaven, this same Jesus is going to come again" (Acts 1:11). And when Christ who is our life shall appear, we shall appear with Him in glory. Oh, but how important that we are able to say, "Christ who is my life." That my life be so completely bound up and centered in Christ that He is my life. Christ who is my life. I love it. 3장 4절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미리 말씀하신대로 “구름을 타고 영광 가운데”(마24:30) 다시 오실 것입니다. “불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계 1:7)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행 1:11)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십니까?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시니”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나의 생명은 온전하게 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으며 묶여 있습니다. 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시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Mortify [or put to death] therefore your members which are upon the earth [that is the members of your body, those body desires put them to death]; fornication, uncleanness, inordinate affection, evil concupiscence, and covetousness, which is idolatry: For which things' sake the wrath of God cometh on the children of disobedience (3:5-6):

Now, as Paul is writing to the Ephesians, he tells them much the same things, that for these things the wrath of God is coming upon the earth. Therefore, we should not be guilty of these things. "Know this," he said, "no whoremongers, nor unclean person, nor covetous man who is an idolater has any inheritance in the kingdom of Christ and God. Let no man deceive you with vain words for because of these things the wrath of God is coming on the children of disobedience" (Ephesians 5:5,6). As he was writing to the Galatians and was listing the works of the flesh, he said, "That we know that those who do these things shall not inherit the kingdom of heaven" (Galatians 5:21). In Romans one he says, "For the wrath of God is going to be revealed against all ungodliness and unrighteousness of men who hold the truth of God in unrighteousness" (Romans 1:18). And then, as he gives this long list of things, parallel list here, he said that, "They which do such things are deserving death" (Romans 1:32).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3:5-6)

이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쓴 것과 같은 내용의 권고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땅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너희도 이것을 정녕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엡 5:5-6)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 육체의 일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갈 5:21) 로마서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좇아 나타나나니"(롬 1:18) 그리고 나서 갈라디아서의

육체의 일들 목록과 병행되는 목록을 다시 한번 열거하고서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느니라”(롬 1:32) 라고 마무리를 합니다.

So don't be deceived; don't let men deceive you. You cannot live after your flesh and inherit the kingdom of God. The very fact that I have accepted Jesus Christ, the whole concept is that I have renounced the life of the flesh. I'm dead to the flesh that I might be alive unto God in Christ, living after the Spirit. And if I am still living after my flesh, the ritual of baptism is not only negated, but all that I might say is also negated. John said, "If a man says he loves God and yet hates his brother, he is a liar" (John 4:20). "The truth isn't in him" (John 2:4). If a man says he abides in Christ then he ought to be walking as Christ walked. In other words, it's not what you say which really counts; it's how you're walking that counts. And so, are you walking after the Spirit? Have you renounced these hidden things of the world? Have you mortified the deeds of the flesh? For don't be deceived, if you are living after the flesh, you are not an heir of the kingdom of God. It is a spiritual kingdom for those who are living and walking after the Spirit, regardless of what you may say or affirm to be so. They that do such things shall not inherit the kingdom of God. And so he lists these things and he says, "Look, the wrath of God is coming upon the earth because of these things. Don't presume upon the grace of God." The children of Israel made a tragic mistake thinking, "Well, we are God's chosen people, and we can live like the nations around us." You can't. You must live as God's people. Mortify, therefore, those fleshly things, 그러므로 속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육체를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이제 육체를 따라 살지 않겠다고 공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영을 따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 위하여 육체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체를 따라 산다면 세례만 무효화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무효화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요일 4:20) “진리가 그 속에 없느니라”(요일 2:4)고 하였습니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처럼 자기도 행하여야 합니다.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동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은밀한 일들과 절교하셨습니까? 육체의 일들을 멸시하며 살고 계십니까? 속지 마십시오.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건 간에 여러분이 육체를 따라 산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뻔뻔스럽게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이니까 주변 나라 사람들처럼 살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비극적인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육체의 일들을 떨치하며 사십시요.

In the which you also walked sometime, when you lived in them. But now ye also put off all of these; [not just these more overt sins of the flesh, but put these off too, put off] anger, wrath, malice, blasphemy, filthy communication out of your mouth. Lie not one to another, seeing that ye have put off the old man with his deeds; and have put on the new man, which is renewed in knowledge after the image of him that created him (3:7-10):

So we should be as John says, walking as Jesus walked. He is our example; He is the image into which the Spirit of God is seeking to conform our lives. And so put off the old man, and put on the new.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훼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3:7-10) 단지 공공연하게 육체의 죄를 행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말한 것처럼 예수께서 행하신 대로 우리도 행하여야 합니다. 예수께서 바로 우리의 모범이 되십니다. 성령께서 바로 그 분의 형상을 닮도록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요.

Where there is neither Greek nor Jew, circumcision nor uncircumcision, Barbarian, Scythian, bond nor free: but Christ is all, and in all (3:11).

We don't have distinctions in Jesus Christ, religious, ethnic or whatever; Christ is everything. He is all, and He is in all. There is not rich or poor, there is not favored and special class; we are just all one.

Put on therefore, as the elect of God, holy and beloved, [now, you put on Jesus Christ, you put off these things, put off anger, wrath, and malice and instead, put on] bowels of mercies, kindness,

humbleness of mind, meekness, long-suffering; forbearing one another, and forgiving one another, and if any man have a quarrel against any: even as Christ forgave you, so also do ye. And above all these things put on charity [love], which is the bond of perfectness [completeness] (3:12-14).

So, not only am I to just put off the works of the flesh, the old life, I am to put on Jesus Christ, living after Him.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3:11)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교적, 인종적인 구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 분은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십니다. 그 분 안에는 부자도 가난한 자도 없습니다. 특별하게 사랑받는 특별한 계급이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너희에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3:12-14)

우리는 육체의 일들, 옛 생활을 벗어버리는 것에 그쳐서는 안되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 분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And let the peace of God rule in your hearts, to which also ye are called in one body; and be thankful (3:15).

So, we're called to thanksgiving; we're called to the peace of God. And then, verse sixteen:

Let the word of Christ dwell in you richly in all wisdom; [And that's why we're here tonight. That the word of Christ might dwell in our hearts richly. That we might teach and admonish one another.] teaching and admonishing one another in psalms and hymns and spiritual songs, singing with grace in your hearts to the Lord. And whatsoever ye do in word or deed, do all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giving thanks to God and the Father by him. Wives, submit yourselves unto your own husbands, as it is fit in the Lord (3:16-18).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3:15)

우리는 감사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16절부터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3:16-18)

Now, as we had mentioned when we were going through Ephesians, God gave very simple rules for marriage. Two rules: one for the wife, one for the husband. And if we'll follow these rules we can have a very happy marriage and a happy relationship. But if we violate these rules, we're going to bring misery into our marriage. The rule for the wife: submit yourself unto your own husband. To the husband: love your wife, be not bitter against them. So the husband is to love his wife as Christ loved the church. The wife is to submit to the husband. These two are tied together. God knows that the greatest need that the woman has is to know that she is loved, that she is loved supremely.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아주 간단한 결혼생활의 법칙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아내를 위한 법칙이고 다른 하나는 남편을 위한 법칙입니다. 이 두 가지 법칙을 잘 따르면 행복한 결혼생활과 행복한 부부관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칙을 위반하게 되면 결혼생활은 비참함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아내를 위한 법칙은 이것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을 위한 법칙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비롯하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도 교회 사랑을 하셨듯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여야 합니다. 이 두 법칙이 서로 묶여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사랑받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자는 세상에서 소중한 존재로 사랑받는 것을 원합니다.

When she knows she is loved supremely, she is secure, and she feels that security, and thus anything my man does is all right. Then she finds it easy to submit to him, because she knows that he loves her supremely. And as she says,

"Well, honey, whatever you want." God knows that the greatest need a man has is to be macho, to feel he's in control. And to challenge that is to court problems. But to play up to that is to open the door for all kinds of demonstrations of love. "Oh, my little sweet heart. Man, what can I do for her today; she's such a doll. She trusts my judgment; she trusts my wisdom. How can I show her how much I appreciate her and love her?" So, as the wife submits, the husband finds it easy to show his love. As she rebels, then he's got to show that he's macho. "I don't need you; I don't need anybody. I'm able to handle. I'm macho. I can do what I want." And so he becomes cold. And as he becomes cold, then she feels all the more insecure and she has to challenge all the more. "This creep! I don't know if he loves me or not. Think what he wants to do is stupid. We have to loose everything, and then he is going to take off. I know he is, because I don't know if he loves me or not." So you feel like you've got to challenge everything. "Are you sure? Do you really know what you're doing?" Macho, "I know what I'm doing. Leave me alone." He gets cold. 자신이 소중한 존재로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 여자는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러면 남편이 하는 모든 일이 좋게 보입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자기를 소중하게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뭐든지 원하는대로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남성이 가진 가장 큰 욕구를 알고 계십니다. 남자는 마초맨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상황을 지배하고 싶어합니다. 남편의 권위에 도전을 하게 되면 만사가 싸움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남편의 권위에 맞추어주면 남편으로부터 모든 종류의 사랑의 표현이 나옵니다. "오 나의 사랑스러운 자기야. 오늘 내가 뭘 해 줄까? 당신은 정말 인형같아. 나의 판단을 믿어주고 내 지혜를 믿어주지. 내가 얼마나 고마워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여자가 복종하게 되면 이렇게 남편은 여자를 사랑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러나 여자가 복종치 않으면 남자는 자기가 집안의 왕인 것을 보여주려고 나서게 됩니다. "당신! 조용히 해! 다 필요없어.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어. 내가 이 집안의 주인이란 말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해!" 그리고 남자는 차가와 집니다. 그러면 여자는 불안해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전보다 더 남자에게 대들게 됩니다. "이 혐오스러운 인간! 그이가 날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이가 하자는 것은 모두 멍청하게만 느껴지네. 우리는 모든 걸 다 잃고 그이는 날 떠나 버릴꺼야. 날 알아. 왜냐하면 난 그이가 날 사랑하는지 앓는지 잘 모르기 때문이야." 여자가 이렇게 느낄 때, 여자는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거 확실해요, 여보? 지금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정말 알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알아!. 내가 알아서 다 잘하고 있어. 날 좀 내버려 둬." 남자는 더 차가와 집니다.

Two rules: wives submit, husbands love. Then you have a happy relationship. Because the wife feels the love and the security and she knows, "Hey, he's my man." And the husband, he feels so macho, "Hey, she's my little gal; she's trusting me to do the right thing." And it's beautiful. It's heaven on earth. Simple, isn't it? "Well," you say, "and it would be simple if my husband really knew what he was doing." But she says, "It would be simple if he really loved me, liked Jesus loved the church." Now,

Children, obey your parents in all things: for this is well pleasing unto the Lord (3:20).

When we were going through Ephesians, he said, "Obey your parents in the Lord, for this is right." And we do recognize that the highest authority in our life is God. And we, the presumption here, is that the parents are Christians and are seeking the spiritual welfare of the child. If the parents are not Christians and are demanding the child do something that would be a violation, if he's conscience before God, then we must obey God rather than man. But assuming that the parents love the Lord and you have a Christian home, children, obey your parents in all things; this is well pleasing unto the Lord.

두 가지 법칙입니다. 여자는 복종하고 남자는 사랑하고. 그러면 행복한 결혼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자가 사랑과 안정감을 느끼게 되면 "이 사람은 정말 내 남편이야"라고 말하게 됩니다. 남편이 자신이 집안의 왕임을 느끼게 되면 "이 여자는 정말 내 사랑스러운 아내야. 내가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나를 믿어주지."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상낙원이 따로 없습니다. 간단하죠? 어떤 분은 "글쎄요. 내 남편이 정말 좀 제대로 한다면 그렇게 간단해 질텐데 말이죠. 남편이 먼저 저를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해 준다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먼저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다음, 3장 20절입니다.

"자녀들아 !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옳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가장 높은 권위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말씀이 가정하고 있는 부모의 모습은 자녀가 영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크리스찬 부모의 모습입니다. 만일 부모가 크리스찬이 아니고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을 강요한다면 자녀는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크리스찬 부모에게 자녀는 모든 일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일입니다.

Fathers, provoke not your children to anger, lest they be discouraged (3:21).

And, *to anger*, is not in the original text. You notice it's in italics. It's just, "Fathers, provoke not your children, lest they be discouraged." It's easy to discourage the child through unreasonable demands. Isn't it interesting how we want to make sure that our children don't make the same mistakes that we made. How we want them to be better than we were. We don't want them to goof off and get mediocre grades in school. We want them to get all A's. And sometimes, we are guilty of pushing our children with unreasonable demands, and what it does cause is discouragement on their part. Make sure that we're not making unreasonable demands upon them, taking away their humanness, causing discouragement. And so, don't provoke your children so that they get discouraged. Actually, I have seen something that I think is a terrible evil. And that is, I've seen fathers sometimes tease their little babies until the baby screams in frustration. "Here, you want this candy? Ha, ha. Here the candy, ha, ha, ha, ha." And they keep teasing the child, pulling it away until the child just loses control and screams, and then, isn't that funny and then hands them the candy. Don't do that. Don't provoke your children. That's not a wise thing to do. You're not teaching them when you do things like that.

“아버지들아 ! 너희 자녀를 격노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3:21)

격노케 말지니라는 말은 사실 원문에는 없는 구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성경으로 보면 그 부분이 이탤릭체로 되어 있습니다. 원문은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부모들의 비합리적인 강요로 인하여 자녀들이 낙심하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저지른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보다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망치기를 바라지 않고 학교성적이 좋기를 기대합니다. 전 과목 우등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과도하게 밀어부치는 잘못을 범합니다. 자녀들은 우리의 지나친 요구들로 인하여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지나친 강요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낙심치 않도록 그들을 화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몹쓸 행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애기야! 사탕먹고 싶어? 여깁다. 잡아봐라. 메롱. 여깁다 잡아봐라.”면서 아기를 가지고 놀리면서 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소리를 지를 때까지 그렇게 하다가 결국 사탕을 넘겨 줍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자녀를 화나게하지 마십시오. 현명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Servants [or employees], obey in all things your masters [bosses] according to the flesh; not with eyeservice, as menpleasers; but in singleness of heart, fearing God: And whatsoever ye do, do it heartily, as to the Lord, and not unto men (3:22-23);

Oh, that you could have employees like that, that are doing things as unto the Lord. They do it heartily; they do it with joyfulness. They do it with a great spirit. Not to be a man pleaser, "Oh, the boss is coming. Look busy." But doing it as unto the Lord,

Knowing that of the Lord ye shall receive the reward of the inheritance: for ye serve [are a servant of] the Lord Christ (3:24).

22절-23절을 보시겠습니다.

“종들아(종업원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직장 상사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3:22-23)

주께 하듯 일하는 종업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여 일하십시오.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일하십시오. 영혼을 다하여 일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 저기 사장님 오신다. 빨리 일하는 척 하자” 그러나 그렇게 일하는 사람은 주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Now, you may be making your living by working there at that office, or factory, or wherever. That may be putting bread on the table, but your life really

is bound up in Jesus Christ. You're His servant. You're called to serve Him. Now you make your living over here. But, even in making your living, if you will do things heartily as unto the Lord, it will open up many opportunities for you to witness. People will say, "How is it that on Monday you can be so happy; you're whistling. Man, my head aches so bad I can hardly see. You seem to have such a good attitude. Boy, if he'd told me that, I would've just really said, 'Hey you take this job, man and stuff it.' You had such a good attitude. And you just went ahead and did it. How is it?" Hey, it opens up so many opportunities to witness for you. Do it as unto the Lord, you're the Lord's servant. He's watching.

But he that doeth wrong shall receive for the wrong which he has done: and there is no respect of persons (3:25).

그런 자세로 직장에서 일하면서 그저 먹고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졌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의 종입니다. 우리는 그 분을 섬기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 직장에서 그저 일하면서 먹고 살 수도 있지만, 만일 여러분이 주께 하듯 마음을 다하여 일을 한다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여러분 앞에 열릴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어이! 김대리. 월요일인데 뭘 그리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나? 휘파람까지 불고 있네? 난 앞으로 일주일 일할 생각하니 두통이 오는데, 김대리 자네는 참 기분 좋게 회사에 나와 일하는구먼. 우리 사장이 나 보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난 '니가 직접 해 봐라'라고 말하고 싶을 텐데, 자네는 정말 기분 좋게 받아들이면서 일을 하는 구만. 어떻게 그렇게 일할 수 있지?" 그러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주께 하듯 일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의 종들입니다. 그 분께서 보고 계십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3:25)

Chapter 3

Masters, give unto your servants that which is just and equal [pay them a decent salary]; knowing that ye also have a Master in heaven. Continue in prayer, and watch in the same with thanksgiving (4:1-4:2);

As we said, prayer has many parts and an important part of prayer is praise and worship, thanksgiving. A minor part of prayer is request, petitions. But then Paul says, "Pray for us." And, of course, in each of the churches he requested prayer, and I think that every minister feels his need of prayer. Pray for us. And Paul desired that they would pray.

Withal praying for us, that God would open unto us a door of utterance, to speak the mystery of Christ, for which I am also in bonds (4:3):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4:1-2) 기도는 여러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기도의 부분은 찬양과 경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간구하고 요청하는 기도가 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모든 교회에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 모든 사역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중보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이와 같이 기도해 주기를 소원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을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4:3)

Here I'm in prison because of my preaching, but pray that God will give me an open door here, even to declare the glorious truth of Christ.

That I may make it manifest, as I ought to speak. Walk in wisdom [The exhortations: continue in prayer, watch the same with thanksgiving, pray for us] toward them that are without [That is towards those in the world, walk in wisdom toward them], redeeming the time (4:4-5).

Don't waste time; we don't have that much time. Take advantage of every opportunity that God gives you. Redeem the time.

Let your speech be always be with grace, seasoned with salt, that ye may know how ye ought to answer every man (4:6).

지금 나는 전도하는 일로 인하여 감옥에 매였노라.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여 나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진리를 전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4:4)

5절을 보시겠습니다.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4:5)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많은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기회를 이용하십시오. 세월을 아끼십시오.

6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루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4:6)

Peter said, “Be ready to give unto every man a reason for the hope that you have within you. That you might be able to answer men” (1 Peter 3:15). And so your speech always with grace. God help us, to bring this tongue under control. Now,

All of my state [or how I am doing] shall Tychicus declare unto you [will tell you], who is a beloved brother, and a faithful minister and fellow servant in the Lord (4:7):

베드로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벧전3:15) 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말을 은혜롭게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혀를 주장하사 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자, 이제 7절을 보시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군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4:7)

두기고는 이 서신을 골로새 교회에 전하여 준 사람입니다. 바울은 현재 로마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동시에 작성하였습니다. 두기고가 그 두 서신을 전달한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서신도 동시에 작성하였다고 하는데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두기고는 바울이 쓴 서신을 가지고 그 교회에 가서 읽어주는 일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두기고를 두고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군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호칭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겠습니다.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군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Whom I have sent unto you for the same purpose, that he might know your estate [he might tell you how I'm doing, and that he might find out how you're doing], and comfort your hearts; With Onesimus, a faithful and beloved brother (4:8-9),

“내가 저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저희가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4:8-9)

Now, this probably is Onesimus for which the book of Philemon was written: the runaway slave who ran away from Philemon, who met Paul in Rome and received Jesus Christ, who Paul was sending back to Philemon with a personal letter, from Paul to Philemon, begging Philemon's forgiveness and begging Philemon to set Onesimus free from his slavery. 여기서 말하는 오네시모라 함은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를 말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그는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바울은 빌레몬의 용서와 또한 오네시모의 자유를 탄원하는 친서를 써 주어 그를 다시 빌레몬에게로 보냈습니다.

With Onesimus, a faithful and beloved brother, who is one of you. They shall make known unto you all things which are done here [the Lord is doing here]. Aristarchus my fellow prisoner saluteth you, and Marcus, sister's son to Barnabas (4:9-10),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매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4:10)

Barnabas, of course, was the first companion with Paul on the first missionary journey. He was the one who went to Tarsus and found Paul after Paul's conversion. And going back to Tarsus for several years, Barnabas came and found him when there was a need in the church of Antioch for someone who really understood the Greek culture to come and minister to the Gentiles, and got Paul involved in the ministry, went with Paul in the first missionary journey. And Mark went with them on the first journey but got frightened and came home, and so when Barnabas wanted to take his nephew (it was his sister's son), wanted to take him on the second journey, Paul said, "No way." And the contention between Paul and Barnabas came so great that Barnabas took Mark and went. And Paul took Silas and went another direction. So now, this same Mark that Paul didn't want to go on the second missionary journey is with Paul there in Rome and he is greeting with Paul the church. And Paul, is saying, "If he comes to you, receive him."

바나바는 사도 바울과 1차 선교여행을 같이 했던 그 바나바를 말합니다. 바나바는 바울의 회심 이후 바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그를 안디옥 교회로 데려왔습니다. 바나바는 헬라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있는 바울이 이방인 사역을 위하여 준비된 사람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었던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동역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1차 선교여행에 동행하였습니다.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도 1차 선교여행에 동참을 하였지만 선교여행의 힘겨움에 질려 그만 중도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후에 2차 선교여행 때 마가를 다시 데려가려고 하였을 때 바울은 극력 반대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간에 다툼이 커지게 되어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독자적인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다른 길로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었구요.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데려가지 않으려 했던 그 마가가 이제 바울과 로마에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가가 바울과 함께 골로새 교회에 문안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고 말합니다.

And Jesus, which is called Justus (4:11),

Jesus was a common name in those days. That's why He was usually called, Jesus of Nazareth to distinguish Him from all the other little boys that were named Jesus. It is the Hebrew name for Joshua or Yeshua, and so, the Hebrew is Yeshua; the Greek is Jesus. And so, here's another one in the Bible called Jesus, which is called Justus.

who are of the circumcision [or they are Jews]. These only are my fellow workers unto the kingdom of God, which have been a comfort unto me. Epaphras, who is one of you (4:11-12),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니”(4:11)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에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다른 예수들과 혼동되지 않도록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우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수아, 또는 예슈아라는 히브리 이름의 헬라식 표기입니다. 유스도라고 불리우는 또 다른 예수는 골로새 교회에서 사역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의 사정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Epaphras, who is one of you, a servant of Christ, saluteth [is greeting you], always laboring fervently for you in prayers (4:12),

I love this. Epaphras was there in Rome with Paul, but he was always praying for those in Colosse. Laboring for you in prayer, or laboring fervently, the Bible says, "The effectual, fervent prayers of a righteous man avails much" (James 5:16). And here's Epaphras, their minister, though he's away from them fervently praying for them. What is he praying:

that ye may stand perfect and complete in all the will of God
(4:12).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4:12)

에바브라는 로마에서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항상 애써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정적으로 힘을 다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약 5:16)이라고 말합니다. 골로새 교회의 사역자였던 에바브라는, 비록 현재는 교우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만, 골로새 교우들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애써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내용은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4:13)이었습니다.

John said, "I have no greater joy than to hear that my children are walking in truth" (3 John 1:4). It's a very discouraging thing if you go away from a church and you hear the whole thing's gone to pieces. Fractured. But to go away and years later to hear, "Oh, they're walking in truth; they're going on with the Lord." No greater joy. And here's Epaphras praying that they might really walk perfect and complete in the will of God.

For I bear him record, that he hath a great zeal for you, and [for] them that are in Laodicea, and them in Hierapolis. [These three cities that were close in proximity to each other.] Luke, the beloved physician, and Demas, greet you (4:13-14).

요한은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요삼 1:4)라고 하였습니다. 목회하던 교회를 멀리 떠나있던 중에, 교회가 산산조각이 났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으니 얼마나 낙심스러웠을까요? 그러다가 후에 그들이 이제는 진리 안에서 행하며 주와 함께 동행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그보다 큰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에바브라는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있게 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4:13-14)

Luke, who, of course, was Paul’s companion in much of Paul’s journeys, the beloved physician, the one who wrote the gospel and the book of Acts. Demas… Now later, Paul is to speak of Demas in his epistle to Timothy, “Tragically Demas has forsaken me, having loved the present world more than the things of God.” But here, he joins in the greeting to the church.

Salute [greet] the brethren which are in Laodicea, and Nymphas, and the church which is in his house. And when this epistle is read among you, cause that it be read also in the church of the Laodiceans [in other words, after you’ve read it, send it over to Laodicea]; and that ye likewise read the epistle from Laodicea. And say to Archippus, Take heed to the ministry which thou hath received in the Lord, that thou fulfill it (4:15-17).

누가는 두말 할 것 없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 대부분 동안의 동행자였고, 사랑받는 의원이었습니다. 그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 때만 해도 골로새 교회에 안부를 전하고 있는 데마는 후에 디모데서에 안타까운 내용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라고 쓰여 있습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늬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킵보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4:15-17)

So, you’re Archippus tonight. I want to say to you, take heed to the ministry which you have received in the Lord, and fulfill it. That’s something that all of us should be concerned with. What is it that God has called me to do, I must be fulfilling it. As Jesus said, “I must do that will of Him who sent me.” So take heed to the ministry that God’s called you to fulfill. See that you fulfill it.

The salutation by the hand of me Paul. Remember my bonds. Grace be with you. Amen (4:18).

오늘 여러분은 아킵보입니다. 자신을 아킵보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십시오. 우리 각자에게는

정성을 기울여 이루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라고 내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께서도 나를 보내신 자의 일을 내가 이루어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르사 맡기신 직분을 삼가 이루시기 바랍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4:18)

And so, we come to the end of the Colossian epistle. And next week we take the first two chapters of Thessalonians. And we move on through, and it won't be long until we will have completed the Bible once more and will go back to Genesis. I don't think I'll ever make it again, but we'll go as far as the Lord allows us. I'm slowing down; you noticed that? The first time we went through it eighteen years ago, we went through the whole Bible in two years. You know, young and full of steam, all but...just slowing down.

이제 골로새서의 마지막 절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는 데살로니가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신약서신을 모두 마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성경을 다시 강해할 것입니다. 제 생전에 다시 한번 성경 강해를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만큼 해 나갈 것입니다. 저의 성경강해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8년전 첫 성경강해를 시도하였을 때, 그 때는 성경 전권 강해를 끝내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그 때는 제가 젊었고 정열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조금씩 속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Shall we pray. Father, we give thanks for the word of instruction, the word of truth. May it indeed become a lamp unto our feet and a light unto our path and may we walk in the light of your truth, Lord. Redeeming the time, in these evil days. Taking advantage, Lord, of every opportunity of serving You and of knowing You better. Lord, we thank You for Your word, and for the opportunity of gathering to study the word. And may the Spirit of God enrich our hearts in Your truth. In Jesus' name we pray. Amen.

God bless. Give you a beautiful week, keep you in the love of Jesus Christ, and cause you to abound in all things in Him. In Jesus' name.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교훈과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말씀이 진정 우리 발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당신의

진리의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악한 때에 시간을 아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당신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모두 이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이렇게 함께 모여 당신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풍요하게 만드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